

## ‘광주軍 공항 이전’ 市·道 갈등 비화

# 광주 “무안 이전” 추진단 구성 전남 “말도 안된다” 결사 반대

### 국방부 “구체적인 장소 아직 결정 못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진 실 공방이 한창이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안 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와 무안군은 ‘사실 무근’이라며 필적 뛰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엔 광주시와 전남도 간 갈등으로 번 지는 듯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군사공항 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태도 표명 없이 ‘군 공항 이전지로 무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어 진실은 쉽게 가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광태 광주지사는 지난달 8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열린 ‘2009년 국비 지원요청 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 결과 이미 공군 비행장 이전 부지까지 잠정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어 “(이전 대상지인)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대 여론과 민원 우려 때

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공군 비행장의 무안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박시장은 또 “광주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용 비행장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흥분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무안으로 군 공항이 이전된다는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다”며 “광주시가 군 공항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불쾌해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무안으로 군용 공항이 이전하기 위해선 수백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무안공항 인근 부지는 모두가 ‘무안 기업도시’에 편입되어 있어 적당한 군 공항 부지가 없다는 것도 ‘군 공항 이전설’이 허구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무안군도 11일 ‘광주 군용 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국방부가 무안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려 할 경우 모든 지역민이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예를 대우고 있다.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광주 군사공항을 대체할 가장 합당한 곳을 찾고 있다”며 “전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전 부지를 찾고 있으며, 무안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시의 무안이전 기정사실화 발언에 대해서도 “광주시 측의 요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추석 3,440만 민족 대이동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천440만명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13일 오전이, 귀경길은 14일 오후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광주역을 찾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여객선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천440만명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13일 오전이, 귀경길은 14일 오후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광주역을 찾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여객선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30개 선도 프로젝트 광주·전남 핵심 사업 누락

# 지역 정치권 공동 대응

### 추석 이후 회동기로

지난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30개 선도프로젝트에 광주·전남지역 핵심사업이 대거 누락된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추석연휴 이후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의원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확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균형발전에 역행, 호남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균발위의 30개 선도사업, 총 50조원 지원은 영남권중 지원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혹평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호남권에는 1개의 권역을 설정했지만 영남권에는 대경권

과 동남권의 2개 권역을 설정, 영남권 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5개 중 3개의 사업(호남고속철도, 여수EXPO, 서남해안 연륙교)이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사업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선도 프로젝트라면 미래 산업으로서 향후에 먹고 살거리여야 하는데 조만간 끝나거나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제시했다”

며 “지역 전체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남지역 선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전남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사업이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J프로젝트와 F1 사업 등 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의원은 “전남도가 애초 군발위에 후보사업으로 건의한 7건 중 ‘철단로 육·복합단지 조성’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우선순위에 상위 3개 사업이 모두 누락됐다”며 “그나마 선정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역시 애초 전남도가 건의한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반쪽짜리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인문계 수능에 미적분·통계 포함

### 현재 중 3학년부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

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인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연습스

###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오후 한때 비 22/29℃	비 22/29℃	구름 많음 21/29℃	구름 많음 21/29℃

즐거운 한가위 맞으십시오  
추석 특집·영화·TV 9~24면  
쓱 뽑아 따로 보관해 놓고 보세요  
13, 15일 신문 쉽니다 kwangju.co.kr 서비스는 계속

유망직업 전망 5대인사이드 비하인드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mckormany.co.kr